

新羅 佛敎에서의 孝觀念

—『三國遺事』 孝善篇을 중심으로—

李 基 白*

1. 머리말
2. 「孝善」의 뜻
3. 孝善史話의 分析
4. 孝善思想의 社會的意義
5. 맺는말

1. 머리말

新羅의 文化를 논할 때에 우리는 너무 佛敎文化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된다. 현재 남아 있는 遺蹟·遺物의 중요한 것들이 佛敎文化의 產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儒敎나 道敎 등 新羅文化는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측면들과의 상호관계를 무시하고는 佛敎文化를 포함한 新羅文化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말하자면 그러한 反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필자가 주로 문제로 하는 것은 佛敎와 儒敎와의 관계이다. 이 양자의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家庭倫理, 특히 孝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孝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하게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三國遺事』에 이 문제를 다룬 독립된 편목이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三國

* 西江大學校 史學科 敎授

遺事』의 著者 一然이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룬 것은 아마도 이 孝 문제를 에워싸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여러 문제가 佛敎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新羅의 文化, 나아가서는 그 社會를 보다 잘 이해하는 하나의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孝善」의 뜻

『三國遺事』의 9편목 중의 하나에 「孝善」편이 있다. 그런데 종종 이 孝善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 孝善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언급한 경우에 이를 모두 孝하는 善行, 혹은 孝라는 善行의 뜻으로 취하고 있다. 가령 때로는 이를 「母에 대한 孝善」의 뜻으로 취하기도 하고,¹⁾ 또 때로는 「자식이 양친에게 정성을 다하고 順命하는 道를 가리켜 孝善」이라고 한다고도 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미 몇몇 譯註者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의 「孝善」은 孝와 善의 둘을 가리킨 것이다. 孝는 물론 父母에 대한 孝道를 말하는 것이지만, 善은 佛에 대한 善行 즉 信仰을 말하는 것이다.³⁾ 그렇기 때문에 孝善편의 한 조목인 「眞定師孝善雙美」의 孝善雙美는 곧 父母에 대한 孝와 佛에 대한 善(信仰)의 둘 다가 아름답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⁴⁾

- 1) 閔丙河, 「三國遺事에 나타난 孝善思想」(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 『人文科學』 3·4 합집, 1975, p. 235).
- 2) 黃滄江, 『新羅 佛敎說話 研究』(1975)의 제 2 장 「佛敎說話의 分類」 제 5 절 「功德」 중의 孝善 조 (p. 154).
- 3) 李載浩 역주 『三國遺事』 下 (1967)에서는 「효선편은 효도와 선행에 관한 것이다」(p. 336)라고 하였고, 李東歡 역 『三國遺事』 下 (1975)에서는 「여기 '善'은 곧 불도예의 향념 및 거기에 따른 행위를 의미함」(p. 253)이라고 하였다.
- 4) 李載浩 上記書(p. 336)에서 이를 번역하여 「효도와 선행이 다 아름답다」고 하였다.

이 점이 우선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一然이 『三國遺事』에 孝善편을 둔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 일찌기 一然이 『三國遺事』에 孝善편을 넣은 뜻은 그가 어머니에게 孝誠이 지극했던 점에서 찾으려는 견해가 있었다.⁵⁾ 그리고 아직도 여러 학자들이 이 견해에 따르고 있다.⁶⁾ 그러나 孝善이 家庭에서의 父母에 대한 孝와 信仰에서의 佛에 대한 善과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편은 끝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한 편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 즉 이 편은 世俗的인 倫理와 宗教的인 信仰과의 관계, 양자의 충돌 혹은 조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孝의 장려를 위하여 설정된 편목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一然 개인의 孝誠心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잘못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孝善편을 一然 개인의 孝誠心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견해는 이 편목이 『三國遺事』에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附錄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가령 「卷末에 孝善一篇을 붙인 것과 같음」이라고 한다든가,⁷⁾ 혹은 또 「三國遺事の 主文과는 다른 일종의 附錄으로 그 성격을 구별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한다든가⁸⁾ 하는 것들이 그러하다. 그러한 견해는 결국 따지고 보면 孝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一然이 孝善편을 설정한 참 뜻을 이해하지 못

5) 崔南善은 「三國遺事 解題」(『啓明』16, 1927, p.7; 『新訂三國遺事』, 1943, p.7)에서 「저 卷末에 孝善一篇을 부친 것 같음도 師의 90老母를 侍養하는 生活에 계기를 가지는 것일지니라」고 하였다.

6) 가령 閔丙河, 「三國遺事に 나타난 孝善思想」p.235. (成均館大『人文科學』3·4 합집, 1975, p.235).

7) 崔南善, 「三國遺事 解題」p.7.

8) 閔丙河, 「三國遺事に 나타난 孝善思想」p.235. 氏는 同論文 p.235의 註7에서도 같은 주장을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孝善조는 三國遺事の 主流를 이루고 있는 俗世의 來歷과 僧界의 來歷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그 末尾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하나의 附錄인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하여주어, 결국 一然이 母에 대한 孝誠에서 가져온 하나의 附錄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게 만들어버렸다.⁹⁾ 그리고 나아가서는 新羅 佛敎에서 왜 이 문제가 야기되었는가 하는 의미도 또한 이해하지를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3. 孝善史話의 分析

이제 『三國遺事』 孝善 편에 실려있는 史話들을 알아볼 단계가 된 것 같다. 孝善 편에는 다음과 같은 5 조항이 들어 있다.

- (a) 眞定師孝善雙美
- (b) 大城孝二世父母
- (c) 向得舍知割股供親
- (d) 孫順埋兒
- (e) 貧女養母

(a)의 「眞定師는 孝와 善이 다 아름답다」는 문자 그대로 孝道와 信仰에 관한 이야기이다. 재산이라곤 다리 부러진 술 하나밖에 없는 眞定은 義湘에게 가서 佛道를 닦고 싶으나 홀어머니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佛法은 만나기 힘들고 人生은 너무도 빠르다」고 하며 入山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여 眞定은 義湘에게로 가게 되었다. 뒤에 어머니가 죽자 義湘은 그를 위하여 錐洞에서 華嚴大典을 講하여 하늘에 태어나게 하였다는 것이다. 홀어머니에 대한 孝道와 信仰을 위하여 出家하는 문제가 主題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갈등은 信仰의 입장에서 해결되고 있

9) 閔泳珪는 『三國遺事』의 원목이 中國의 梁·唐·宋의 三高僧傳의 그것에 따른 것이란 입장에서 孝善 편에 언급하여 「三國遺事에는 中國의 三高僧傳에 없는 것으로 塔像 편 외에 또 孝善이 있습니다만, 이 孝善 편은 모두 感應 편으로 편입시킨다 해도 조금도 어색할 것이 없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였다(『韓國古典研究집포지음 討論述記錄』 『震檀學報』 36, 1973, p. 169; 『韓國古典집포지음』 1, 1980, p. 28). 그러나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다는 것과는 다르며, 따라서 위의 설명만으로는 『三國遺事』의 孝善 편이 中國의 三高僧傳의 패턴에 따라서 설정된 것이라는 설명은 되지가 않는다. 더구나 이상과 같은 주장만으로서로는 一然이 孝善 편을 독립시킨 뜻이 설명되었다고 하기는 힘들다.

는 것이다.¹⁰⁾

(b)의 「大城이 二世의 父母에게 孝道했다」도 (a)의 眞定師의 경우와 같이 孝道와 信仰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가난한 大城은 富者집에 품팔이를 하여 그 대가로 얻은 밭을 경작하며 살았다. 이 밭을 法會를 위해서 布施한 덕으로 大城은 죽어서 宰相家에 태어나, 前世의 어머니와 現世의 父母를 위하여 각기 石窟庵과 佛國寺를 지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머니에 대한 孝道와 信仰을 위한 布施의 문제가 主題로 되어 있다. 여기에도 양자 사이에는 갈등이 개재하고 있는데, 그 갈등이 信仰의 입장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은 (a)의 경우와 같다.¹¹⁾

(c)의 「向得舍知가 다리살을 베어 아버지를 봉양하다」는 제목 그대로의 내용이다. 이로 말미암아 熊川州人인 向得은 景德王으로부터 租 500石을 賞으로 받았었다. 向得에 관한 기록은 『三國史記』에도 보이고 있다.¹²⁾ 그

- 10) 閔丙河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眞定の 孝善의 이야기는 母에 대한 孝와 佛敎가 얽혀서 성립된 것이다. 孝誠이 지극하여 중이 되었고 중이 되었기 때문에 母를 죽은 후에 하늘에 遷生케 하였다. 이와 같은 孝와 佛敎가 얽힌 이야기의 성립은 僧侶인 一然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였다. (『三國遺事』에 나타난 孝善思想 p.236)고 하였다. 一然의 입장에서 이 眞定の 이야기가 중요했다는 데에는 동감이다. 그러나 氏는 眞定이 孝誠이 지극하여 중이 되었다고 하여, 俗世에서의 孝行爲와 俗世를 버리고 僧侶가 되는 信仰行爲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하여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僧侶의 입장에서 그 갈등을 해결한 점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이는 一然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11) 閔丙河는 이에 대하여 이 「大城孝二世父母」도 전편의 「眞定師孝善雙美」와 그 유형을 같이하고 있다. (中略) 결국 母에 대한 孝와 佛敎가 얽혀서 성립된 孝談인 것이다. (同上論文 p.237)라고 하였다. 眞定師孝善雙美 조와 유형이 같다는 데에는 역시 동감이다. 다만 여기서도 世俗의인 孝와 僧侶의인 布施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역시 僧侶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데에 이 이야기의 초점이 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 12) 『三國史記』 48 向德傳은, 비록 德과 得의 漢字表記가 다르기는 하고, 또 약간의 내용 차이——가령 『三國遺事』에서는 租 500石의 賞賜가 있었는데, 『三國史記』에서는 租 300斛, 宅 1區, 口分田 약간을 주고 碑를 세워준 것으로 되어 있는 따위——가 있기는 하지만, 바로 向得의 이야기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의 기록이 『三國遺事』보다 자세하다. 이 向得(向德)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른 尹龍燾, 「新羅 孝子 向德과 그 遺蹟」(『百

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거의 佛敎的인 색채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따라서 순전히 孝를 기리는 성격의 이야기가 되었다.¹³⁾

(d)의 「孫順이 아이를 매장하다」는 가난한 孫順이 어린애가 어머니의 음식을 뺏어먹는 것을 안타까와 하여 아이를 생매장하려 하였다는 이야기다. 매장하려다가 발견한 石鐘을 걸고 친 소리를 들은 興德왕이 그 孝를 칭찬하여 家屋 1區와 粳米 50碩을 賞賜로 주었는데, 孫順은 舊居를 佛寺로 만들었다 한다. 여기서는 처음은 반드시 佛敎와 관계가 없으나, 뒤에는 결국 舊居를 弘孝寺라는 佛寺로 만들므로써, 따라서 僧侶가 되었음직한 점에서, 佛敎와 관련을 짓고 있다.¹⁴⁾

(e)의 「貧女가 어머니를 봉양하다」는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는 貧女의 애처로운 사정을 안 花郎 孝宗郎의 무리가 그를 도와주게 되고, 또 眞聖女王도 그를 돕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도 『三國史記』에는 孝女 知恩이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列傳에 傳記를 실고 있다.¹⁵⁾ 다만 『三國遺事』의 경우는 知恩의 孝道를 알게된 경위를 花郎 孝宗郎과 관계시켜 서술

濟文化』11, 1978)에서는 原典上의 차이에 말미암는 것이리라고 추측하였다(同上論文 p. 53). 이러한 추측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三國史記』를 읽고 또 인용도 하고 있는 一然이 여기서 向得의 이야기를 『三國史記』보다 간단한 편을 택한 이유는 일단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三國史記』에 실려 있는 聖覺에 대한 이야기를 전적으로 무시한 태도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 13) 이미 閔丙河도 이에 언급하여 「이것은 앞의 篇과는 달리 父에 대한 孝善이고, 佛敎와 관련을 짓지 않고 성립된 美談이다」(上記論文 p. 237)라고 하였고, 尹龍燧도 「佛敎的인 색채를 加味하지 않은 유일한 例」(上記論文 p. 53)라고 하였으며, 또 金煥泰도 이를 「전연 佛敎와는 관계 없는 項目」(『三國遺事 所傳의 新羅佛敎思想研究』, 1979, p. 20)이라고 하였다.
- 14) 閔丙河는 이에 언급하여 「孝와 佛敎가 얽혀서 성립된 것」(上記論文 p. 237)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金煥泰는 「孫順埋兒興德王代」조나 「貧女養母」조도 向得舍知의 경우처럼 백성의 孝行을 전하는 이야기라서 직접 佛敎와 관계가 없는 것 같으나, 그래도 이 두 경우는 弘孝寺라든지 兩尊寺라는 佛寺에 관련되는 寺院緣起說話의 일면이 있기도 하다고 하였다(上記書 p. 20 註 40). 후자의 경우가 더 명확하게 실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 15) 그러므로 「廣州의 이름도 모르는 한 처녀에 얽힌 것」(閔丙河, 上記論文 p. 238)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 된다.

하였기 때문에 좀더 인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三國遺事』에서는 후에 그 집을 兩尊寺라는 佛寺로 했다고 하므로 아마도 尼僧이 되었음직하게 생각된다는 점에서 또한 佛敎와 관련짓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¹⁶⁾

이렇게 살펴오고 보면 孝善편에 기록된 5 조목의 이야기는 다음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볼 수가 있음직하다.

(가) 世俗의인 孝道와 佛敎의인 信仰과의 사이에 개재하는 갈등을 信仰의 입장에서 해결한 이야기 (a·b).

(나) 孝道로 말미암아 王으로부터 賞賜를 받은 이야기(c).

(다) 孝道로 인하여 現世의인 福을 받고 佛道에 歸依한 이야기(d·e).

이 세 유형 중에서 (나)의 경우는 좀 특이한 느낌을 준다. 篇名을 「孝善」이라 하고도 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孝에 대한 내용만이 담긴 向得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三國史記』 48 列傳에는 向得(向德)과 함께 聖覺을 孝子로 들고 있다.¹⁷⁾ 그런데 聖覺은 스스로居士라 칭하며 佛寺에 머물던 佛敎信者였다. 그러므로 다리살을 베어 老母를 공양한 것이나 國王이 이 이야기를 듣고 賞賜를 한 것은 向得과 같으나, 老母가 돌아간 뒤에 佛事로서 福을 빈 것이 다른 것이다. 孝善의 입장에서 본다면 向得보다는 聖覺이야말로 『三國遺事』 孝善편에서 더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一然은 聖覺을 무시하고 向得만을 다루었다. 이것을 向得의 경우는 『三國史記』와 다른 所傳이 별도로 발견되거나 聖覺의 경우는 별도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추측만으로 처리해버릴 것이 아니라,¹⁸⁾ 좀더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6) 註(14)의 金煥泰 說 참조.

17) 向德·聖覺에 뒤이어 史論으로서 孝 특히 割股供親한 사실에 대하여 논하면서 向德의 이름까지 들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2명이 孝子列傳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8) 尹龍燦, 「新羅 孝子 向德과 그 遺蹟」 p. 55. 그러나 『三國遺事』가 佛敎 관계 史實들을 『三國史記』의 기록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떻든 向得의 이야기는 실로 예외적인 것이다.¹⁹⁾

만일 이 (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孝善 편은 결국 孝善雙美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가)의 경우는 孝道(事親)과 信仰(出家·布施) 사이에 개재하는 갈등을 信仰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다. 眞定の 경우는 一然 자신이 이미 이를 孝善雙美라고 불렀던 것이다. (다)는 孝道와 信仰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양자에 모두 충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뜻에서 이를 孝善雙美라고 불러서 마땅한 것이다. 그러므로 孝善 편은 곧 孝善雙美 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三國遺事』는 그런 식으로 篇名을 붙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것이 「孝善」이란 이름으로 篇名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²⁰⁾

4. 孝善思想의 社會的意義

『三國遺事』의 孝善 편은 一然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긴 하다. 그러나 거기에 실린 이야기들은 新羅時代부터 전해오던 것들이며, 따라서 新羅時代의 佛教信仰을 나타내주는 것들이다. 즉 孝善雙美해야 한다는 佛教的 입장은 이미 新羅時代부터 있어왔다고 해야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佛教的 입장은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시의 新羅의 社會 혹은 佛教界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과 연결시켜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위에서 분류한 (가)의 경우에서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

19) 金煥泰는 「孝善 편은 더욱 勸善主義의 佛教의 입장에서 특히 末尾에 孝順 善行의 한 項目을 묶어서 수록한 것 같으므로, 여기에도 撰者의 손이 미치는 데까지는 佛教事實이 아니더라도 그 방면에 관련 있는 중요 사항이면 함께 수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三國遺事 所傳의 新羅佛教思想研究』 1979, p. 21). 그렇지만 孝善이 孝(事親)와 善(信仰)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에 이는 제목에 맞지 않을 것이며, 게다가 이미 언급한 대로 제목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聖覺의 이야기는 빼고 있으므로, 위의 설명만으로는 남독이 가지 않는 점이 남는다고 할밖에 없다.

20) 『三國遺事』의 篇名은 王曆·紀異·興法 등 모두 2자로 통일되어 있다.

즉 첫째로 이 문제는 眞定의 경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出家로 말미암아 家庭生活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고민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 그 대부분은 父母의 生計와 관련될 것이다. 특히 統一을 전후하여 가난한 家庭 출신의 出家者가 늘어나고 있으며,²¹⁾ 이러한 추세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의 사회적 고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大城의 경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布施로 말미암아 家庭生活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고민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도 가난한 家庭인 경우에 그 대부분은 父母의 生計와 관련된 문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佛寺의 創建이나 佛敎儀式의 증가에 따라서 이 布施의 문제도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佛敎信仰에 의하여 야기된 家庭 문제, 특히 父母 봉양의 문제에 대하여는 儒敎가 現實的인 事親以孝의 입장에서 이를 크게 제기하지 않았을까 한다. 新羅에서 儒敎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미 三國時代부터였으며, 事親以孝는 圓光에 의하여 世俗五戒의 하나로서 강조된 바도 있었다. 그러나 儒敎가 하나의 독립된 사회적 세력으로 등장하기는 統一 후에 六頭品 출신 學者들에 의하여 크게 강조되면서부터였다.²²⁾ 人物로서 말하자면 強首·薛聰 등이 國王의 신임을 받게될 무렵부터였다. 그런데 強首는 佛敎를 世外教라고 하며 이를 배격하였다.²³⁾ 世外教란 뜻은 非現實的인 敎란 뜻일 터이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現世에서의 家庭의 문제, 現實的인 孝道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에 대한 批判이 담겨 있었다고 봐서 잘못은 없을 것이다. 強首가 『孝經』을 배웠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 좋을 것이다. 薛聰에 있어서는 소위 『飄王書』를 통해서 그의 政治思想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필시 그가 참여하여 세웠을 것으로 짐

21) 그러한 예로서 眞定 이외에도 惠宿·惠空·地福 등의 인물울 들 수가 있다.

22) 拙稿, 「新羅 骨體體制下的 儒敎의 政治理念」(『大東文化研究』6·7합집, 1970; 『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 1978), 특히 「맺는말」 참조.

23) 『三國史記』46 強首傳.

작되는 國學에서 『論語』와 함께 『孝經』을 必須科目으로 가르친 사실도 또한 주목된다.²⁴⁾ 즉 薛聰도 現世에서의 孝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봐서 좋을 것이다.²⁵⁾

이와 같았다고 한다면 佛敎가 이 孝의 문제에 대하여 무언가 해답을 해야만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²⁶⁾ 그리고 그 해답은 孝善雙美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즉 父母를 成佛得道케 하는 것이 참된 孝라고 하는 信仰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統一新羅時代 佛敎信仰에서의 孝였으며, 또한 당시 儒敎로부터 받은 批判에 대한 佛敎측의 應答이었던 것이다.

한편 佛敎의 信仰生活와 現實의 家庭生活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양자가 모순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통해서도 孝善雙美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孝와 善은 現實世界에 있어서도 조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들이다. 특히 孫順埋兒의 경우에 나타나는 鐘은 필시 佛敎적인 것일 터이므로, 여기에는 孝가 功德思想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²⁷⁾ 어쨌든 孫順埋兒와 貧女養母는 모두 그들의 집을 佛寺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모두 佛

24) 國學的 설립에 強首와 薛聰이 참여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上記 拙稿 pp. 159~160 참조.

25) 尹龍燦은 「비록 당시 孝經을 비롯한 儒敎經典이 지식인들간에 읽혀졌다고는 하나 儒敎의 차원의 對民敎化施策으로서의 孝行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여행은 新羅의 경우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上記論文 p. 55). 이것은 옳은 주장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國家의 對民敎化政策으로서의 孝行 장려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儒學者들이 孝行을 중요시하는 주장은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26) 肉體的인 孝養이 아니라 三寶를 믿고 成佛得道케 하는 것이 참된 孝라고說한 佛敎의 대표적 孝經典인 『孝子經』 같은 것이 新羅에서 읽혀졌다는 증거는 아직 찾을 수 없다. 다만 역시 孝經典의 하나인 『梵網經』에 대하여는 元曉·玄一·義寂·勝莊 등 많은 學僧들이 이에 註疏를 하고 있다(閔泳珪 「新羅章疏錄長篇」 『白性都記念 佛敎學論文集』, 1959).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검토는 後日로 미룬다.

27) 黃涓江은 孝善의 說話를 크게는 功德에 관한 說話 속에 넣어서 다루고 있다(『新羅 佛敎說話 研究』, 目次 참조).

敎信仰에 歸依하여 出家한 듯하므로, 단순히 孝와 善을 아울러 갖추었을 뿐 아니라 결국 善으로 끝마무리 짓고 있는 셈이다.²⁸⁾ 그러므로 이 유형의 史話들도 儒敎의 批判에 대한 佛敎의 應答으로 봐서 좋다고 믿는다.

儒敎의 세력이 커져가면서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을 이러한 佛敎의 입장은 一然의 時代에서도 역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러한 필요성이 一然으로 하여금 『三國遺事』에 孝善편을 넣게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一然의 개인적인 문제 이상의 심각한 佛敎界 전체의 문제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孝善편이 단순히 『三國遺事』의 한 附錄과 같은 것에 그칠 수는 없는 것이다.

5. 맺는 말

『三國遺事』 孝善편은 新羅 佛敎에서 孝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문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史料이다. 비록 때로 說話的 색채를 띠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新羅 佛敎에서의 孝觀念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바로 孝에 대한 그들의 생각인 것이며, 그것이 說話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되었다고 해서 그 관념을 이해하는데 부족할 것은 없기 때문이다.

新羅時代는 분명히 佛敎가 크게 융성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인 현실 문제를 에워싸고 제기된 儒敎측의 批判에 대하여 佛敎가 이를 무시해버릴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당시의 佛敎, 나아가서는 당시의 文化 전반을 보다 잘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28) 여기서 우리는 聖覺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聖覺은 처음 일단 居士로서 佛寺에 依托하였으나, 뒤에 다시 歸家하여 老母를 봉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그가 독실한 佛敎信者로서 시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眞定과는 반대로 佛寺를 떠나 歸家했다는 점에서, 佛敎信仰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지가 않은게 아닐까. 一然이 그를 孝善편에서 제외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게 아닐까 한다. 한편 尙得의 경우는 순전히 孝에 관한 史話인데, 佛敎에서도 그러한 孝를 거부하는게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려는 뜻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Filial Piety in Silla Buddhism

—focusing on the Chapter “Filial Piety and Religious Goodness” in the *Samguk Yusa*—

Lee, Ki-baik

Among the nine chapters in the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 is the one entitled “Filial Piety and Religious Goodness.” The historical tales in this chapter concern the problems pertaining to the conflicts between filial duty to one’s parents and religious deeds. That is, in the case of not being able to be filial toward one’s parents due to one’s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or giving alms, such conflicts could be resolved through religious deeds. The idea expressed in this chapter is that real filial piety means leading one’s parents to the attainment of Nirvana rather than serving them in the mundane world.

Of course this idea represents Buddhism in the Silla period as produced in the historical tales from the chapter “Filial Piety and Religious Goodness.” In the Silla period Confucianism began to have an influence over the society and criticize the impractical characteristics of Buddhism. This changing situation spurred Buddhism on to meet somewhat defensively the criticisms of Confucianism, and the ideas of Silla Buddhism as shown above were a positive response to such criticism. In this respect an understanding of its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Confucianism will contribute to a clearer understanding of Buddhism in the Silla period.